

◎ 「사기 조선열전」;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 1』 (신서원, 1990/ 2007)

1. 사마천 사기의 ‘조선’ 및 ‘만이’ 인식

(1) 사마담, 사마천 부자는 『사기(史記: BC104-BC91)』 저술의 목적을 『춘추』의 계승이라고 밝힘. 공자가 『춘추』를 직접 찬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맹자』가 공자의 춘추저작설을 주장한 이래, 『춘추』는 사실(史實)의 포범을 통하여 정치적, 도덕적 규범의 확립, 후세의 왕자(王者)를 위한 난세 극복의 원리를 제시하기 위한 저술이라는 춘추관 성행. 『사기』 또한 사실(史實)에 가탁한 왕도의 현창, 또는 후세 왕자를 위한 법도의 제시라는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 (이성규, 『수정판 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사마천 사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12-14) 다시 말해서, 『사기』는 처음부터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서술.

(2) 『사기』에는 권110 「흉노(匈奴)열전」, 권113 「남월(南越)열전」, 권114 「동월(東越)열전」, 권115 「조선열전」, 권116 「서남이(西南夷)열전」, 권123 「대원(大苑)열전」이 실려 있다. 주변민족과 지역을 별개 항목으로 서술한 최초의 중국 사서. 외국인족의 시원이나 내부사정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고, 중국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만을 기술. 현실적 관심사를 반영. (고병익,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조선전을 중심으로”, 『동서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2) BC 221년 통일제국 진(秦)의 성립, 『사기』 저술 당시 한 무제 팽창정책과 관련 깊음. 진 이전까지 사서에서 ‘이(夷)’는 중국대륙 내의 非華夏계 토착인들을 지칭. 예를 들어, 사마천 『사기』 「본기(本紀)」의 선진 시기 ‘동이’에 관한 기록들. 그러나 이들은 진나라 군현제 시행으로 중국의 민호(民戶)로 흡수. 따라 진한제국 성립 이후 ‘사이(四夷)’는 중국 대륙의 사방에 존재하는 조선, 흉노, 월 등을 가리키는 말로 개념 변화, 확장. 『사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동이’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중국 주변의 이민족을 통칭하여 ‘만이(蠻夷)’로 표현하고 있다. // 진한대의 ‘이적(夷狄)’, ‘만이’ 개념은 선진 때와 달리 종족적, 문화적, 지리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개념의 성격이 강했다. 황제의 직접 지배범위가 중국과 이적을 가름하는 기준. (井上秀雄, “『史記』, 『漢書』의 東夷王者觀”, 『朝鮮學報』, 103, 1982)

따라서, 위만(衛滿)조선은 ‘만이’로 표현하지 않고, 진번(眞番)조선에 대해서는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 위만이 망명하기 이전의 조선지역을 ‘만이’로 인식. 「조선열전」은 “조선왕 만은 연(燕)나라 사람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 위만조선 이전의 ‘조선’에 대한 내용은 배제. 위만조선은 중국의 ‘외신(外臣)’체제에 편입된 존재로 인식. 만이가 아니라 오히려 만이들을 통솔하고 관하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 외신이었던 위만조선이 한사군(漢四郡)의 설치로 한의 군현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조선열전을 기록. 이외에 『사기』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서는 ‘기자(箕子)조선’, 「평준서(平準書)」에서는 창해군 설치와 관련된 ‘조선’ 기록이 부분적으로 보임.

(기수연, “중국 문헌에서 보이는 ‘동이(東夷)’와 ‘조선(朝鮮)’”, 단군학연구, 4, 2001)

2. 해석의 쟁점: 고조선 및 한사군의 역사지리 문제

위만이 “패수(溟水)를 건너 진나라의 옛 공지의 상하부에 거하였다.”(p.7)

(1) 구한말 및 식민지 시기 일본학자들의 견해

일본역사학계: 고조선 연구=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붕괴시키고 세운 한사군(낙랑) 연구.

a. 패수의 위치? 연나라 장성의 동단문제와 위만의 고조선 진입 및 전한 무제와의 전쟁과정에서 중국세력과 고조선의 경계로서 중요. 예성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설.

b. 진번군의 위치? 낙랑의 경우, 대동강 일대로 고분유적 등에 의해 확정.

(2) 한국학자들의 비판

a. 일제 강점기 당대: 정인보는 신채호 논의를 바탕으로 고조선 역사공간을 요동지역 중심으로 파악. 한사군에 대해서도 ‘한사군역(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위만조선과 한 제국 간 전투 상황이 계속되었음을 강조. 정인보가 남북됨으로써 1950,60년대 북한학계의 고조선 관련논의와 연구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b. 북한학계: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압록강 이남 지역과 관계없음. 만이 도읍한 왕검성의 위치는 험독과 연결되어 혼하(渾河)=요수(遼水) 입구 부근. 패수=요수=지금의 혼하. 특히 리지린은 기왕의 실학자(성호 이익, 박지원, 이규경), 신채호, 정인보 등 선학의 연구성과 바탕으로 방대한 문헌섭렵 통해 고조선 요동중심설 피력. 북한학계의 공식적 견해로 자리잡음. 일본 학자들의 고조선 평양설 및 낙랑에 대한 통설을 정면으로 논박.

1970년대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왕검성은 요하하류 해성과 개평 사이 지역이며, 패수=대릉하로, 열수=요하로 이해. 고조선을 포함한 예, 맥, 한족의 공통문기문화로 비파형단검 문화. 중국동북지방의 요동, 요서지방, 길림, 장춘지방, 한반도 서북부, 서남부에서 발견되는 비파형단검문화가 고조선의 문화일 뿐 아니라 전체 고대 조선족의 문화라는 인식 제시. 1993년 단군릉 발굴 및 재건을 기화로 고조선 평양중심+요동지역 확장설로 새롭게 재구성. 한편, 평양 일대 낙랑유적에 대해서는 중국 것과 명확히 구별됨을 들어 고조선 종말 이후 고조선 유민의 독자적 중심지로 해석.

c. 남한학계: 이병도, 위만조선은 중국인 이주민에 의한 식민지적 성격의 정권이 아니라, 전국 시대 연나라 지역에 존재했던 토착 고조선인 계통이라고 봄. 천관우, 김정학, 서영수, 노태돈 등에 의한 고조선 이동설. 기원전 3세기 초까지 고조선의 중심부는 요동이었으나 연나라의 공격에 의해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 윤내현, 요서지역에 기자조선을 설정하고 위만조선 및 한군현 또한 이 곳에 있었다는 고조선 요동설 입장 고수. 송호정, 요동지역은 예맥에 해당하고 한반도 서북지역이 고조선 중심지. 조법종, 왕검성 함락이전에 설치된 낙랑군은 왕검성과 별개의 지역이며, 왕검성이 함락된 후 BC 107년 설치된 현도군 지역이 왕검성과 관

련. 한국학계의 고조선, 낙랑연구는 식민사학이 주장하는 한군현에 의한 타율성론과 반도사관에 입각한 한반도 내 역사영역 제한이란 연구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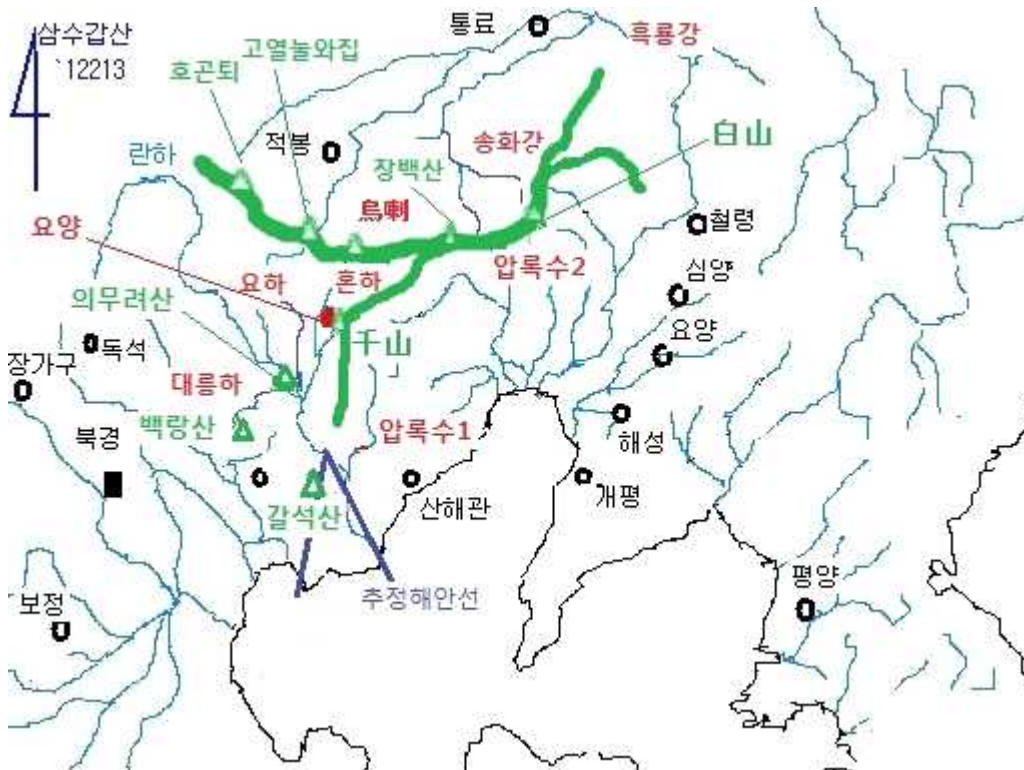
(조법종,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3) 중국학계의 입장

a.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고구려의 중국사 귀속과 연동하여 고조선사도 중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 그 근거로 기자가 조선지역에 가서 왕노릇했다는 ‘기자동래설’ 및 ‘기자조선’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중국학계의 연구 중심. 그런데 기자동래에 관한 기록이 기자 당대인 기원전 11세기 및 춘추전국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기원전 1세기경 한나라 시기부터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朝鮮)’이라는 명칭이 『주역』의 ‘명이(明夷)’ 등 중국 전거에서 나온 중국적 표현이라고 주장. 기자동래를 입증하려고 했고, 기자동래에 의해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부각. 기자조선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평양설과 요서설(이동설)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c. 2002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한족 중심주의와 극단적인 중화민족주의로 고착되는 상황이 전개. 중국적 역사 범주에 고조선을 편입시키려는 입장만이 부각된 연구 결과가 반복 양산되고 있음.

(조법종,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검토: 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2006)



3. 접근법 및 프레임에 관한 생각: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들의 역사 해석과 서술

(1) 제국의 시선

전해종 - 외국전을 정사에 편입시켜 기술하는 이유. 물론 열전, 혹은 부록이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중국적 혹은 중국중심적 세계관, 역사관.

타마라 친

페어뱅크+헤비아 = assimilation, attraction, manipulation, control, neglect

중국의 제국관리책. Chinese world order 혹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초기 형성사. 고대.

(2) 한국의 시선?: 하영선 선생님 코멘트

고대사 연구가 21세기 현대국제정치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동아시아질서의 원형. 안과 밖 질서의 프로토타입을 역추적. 이것이 동아시아 신질서를 파악하고 건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 상상과 분석 모두에 있어서 그러함. 사학계로서는 하기 어렵다고 봄.

은나라 말기부터 보기 시작해야 함.

고고학과 문헌학. 선진 시기의 문헌 자체가 희소한데다가 중간에 소실. 진한시대에 복간. 고문, 금문, 위문 테스트를 거쳐야 함. 사마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 고고학은 더 난감함.

그렇다면, 일단 그 당시에 쓰여진 것만 보자. 문헌학.

질문1. 고대에 단원적 질서가 존재했는가?

(1) 서주

갑골문자를 보면, 天도 있고 夷도 있음. 다만 이 때 ‘천’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 대우정, 이라는 제사그릇에 사용되었다는 291자. 은나라 초기의 금석문.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 “문왕이 천령(=명)을 받았다. 무왕이 문왕의 대를 이어 나라를 건설하고 나쁜 무리를 제거해서 사방을 영유했다.” 邦과 四方. 천명을 받은 구조는 결국 방과 사방으로 구성. 앞의 ‘방’은 문왕이 하늘에서 명을 받아서 만들었음. 그런데, 무왕이 사악한 주변무리를 제거해서 사방을 영유했던 것은 무력 진압.

그렇다면, 위만조선은 어디에 속하는가? 위만은 분명 ‘사방’에 위치.

(2) 춘추시대

<춘추> 자체는 춘추시대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음. 3춘추해석서인 공양전, 좌전, 곡량전은 모두 몇백년 뒤인 전국시대에 기술.

사방=반드시 '夷'인가?

(3) 전국시대

1단계: 서주 200년 동안에, 주나라가 천명에 의해 만든 주-방 주변의 사방의 세력들은 아직 분명한 위협으로 등장하지 않았음. 천자-방-사방 구분

2단계: 춘추시대에 들어오면 화/이 구분이 생겨남.

3단계: 전국시대. 전국 7웅과 주변국들 구분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됨.

(4) 진한시대

사마천 사기가 나온 것은, 전국시대 끝나고 진 거쳐서 한 성립. 이 시기엔 어떤 구분법? 어떤 천하질서의 구조?

(동일한 사마천 사기도 그 문헌학적 전거상 신뢰성이 일정치 않은데, 위만조선의 경우 사마천 당대와 밀접한 때이므로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p.7 <조선열전>에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요동태수는 곧 만을 외신으로 삼을 것을 약속”. 외신이 있다면 ‘내신’이 있다는 뜻. 위만조선은 명확히 내신은 아님. 그렇다면, 구조는 점차 명확해짐. 사마천 사기 당시의 천하질서의 구조? 내신-외신(위만조선)-만이. 위만조선 이전의 기자조선이든 한반도의 정치세력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음. “천자를 뵈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하였다.”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개념 등장. 오복, 구복.

사마천 사기에는 왜 하필 6개의 외국열전이 등장할까? 그 중에는 흉노가 압도적으로 중요함.

페어뱅크+헤비아 모델을 이 시기로 끌고갈 수밖에 없음.

(1) 중심 : 華化: sinicization. 동화. 중원에 작동하고 있는 규칙. 그러나 실제로는 춘추에서 전국으로 가면 중심에서도 싸움판이 벌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이념적으로는 화화가 작동하고 있는 걸루, ‘예’에 기초한 명분체계의 국가.

(2) 화친: 흉노처럼 중원이 군사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외이에 대해서. Hevia의 용어로는 회유원인책. (결혼, 경제적 이익)

(3) 선진시대에는 봉건제였다가, 진한시대에는 군현제로 천하일통하면서 ‘기미(reign)’책이 등장. 직접 정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통제. (법과 행정에 의해서)

(4) 말을 안 듣는 가장 바깥 or 내륙아시아에 대해서는 정복(control). 진한이 직접 or 외신을 시켜서. 정복국가.

비록 현실은 완전히 단일하지 않지만, 전체사적으로는 명분의 천하질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중국의 역사적 DNA를 보건대, 시진핑의 중국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조선전>을 읽음으로써-->‘夷’ 전반에 대한 독해--> 천하에 대한 독해. 중국 제국의 천하 control책. 華가 夷를 다루는 역사적 방식.

위만조선의 위치. 위만조선=고조선일 수 없음. 위만조선을 외신화,한 것은 고도로 정치적 행위. 한사군은 거의 ‘기미책’에 가까움.

서주 프로토타입 -> 화이 -> 구주 오복 -> 군현제가 들어오면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결국 논증은 당대 문헌에 의거. 갑골에서 금석문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것들(고문). 춘추시기/ 전국시기의 글 가운데 당대 글 엄선(금문). 위문 아닌 것으로.

왜 사마천 사기 <조선전>은 위만에서 시작하는가?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사마천에게 위만 이전의 고조선을 서술할 전거가 없었기 때문.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엄격성.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 이현미 코멘트

페어뱅크와 신청사 헤비아 등 영미 학자들의 작업을 프레임웍으로 사용하고, 중국정사를 문헌학적 전거로 사용해서 ‘위만조선’을 통해 읽히는 진한시대 천하질서를 재구성할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조선사가 중국사의 일부인 것처럼 읽혀지지 않을까?

● 전재성 코멘트

한국쪽 고조선사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훨씬 이전에 단군조선이 존재. 페어뱅크 프레임웍으로 중국쪽 문헌학적 전거를 사용해서 천하질서제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서술할 경우, 중국 historiography를 fact로 전달하게 될 우려 있음.

문제는, 우리쪽 기록이 없다는 것. 전거는 문헌학 or 고고학 둘 중 하나밖에 없음. 하은주 공정에 의해 중국사에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신화였던 하나라를 역사로 편입시킨 것처럼, 단군조선의 신화를 역사로 편입시켜 볼 수도 있음.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된 고구려의 정사에서 고조선에 관한 전거 발견 가능성?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금석학 시도. (역통에 금석문 정리해 둔 것이 있음)

● 김성배 코멘트

고대에는, (하영선 선생님이 천하라는 단원적 세계질서를 입론하는 것에 반대해서) 중국-조선 간에 이원적 세계질서가 존재했음.

● 이현미 코멘트

금석문을 사용해서, 고대부터 사용된 한자의 뜻풀이로 들어갈 경우 매우 개념사적 접근법이 됨.